

시진핑 '新 경제구상' 北·中경협 빠졌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줄줄이 중단 유보 가능성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글로벌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제외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하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라오닝(遼寧)성 등 동북 3성 진흥을 위해 공을 들여온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이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업 보고서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전례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초안에서 북중경협이 빠

진 데 대해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발개위의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2016~2018) 수립과 이행을 보면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몽골 등과의 협력만이 포함됐다.

북한, 러시아 등 동북지역 이웃국가들과 연계된 국제경제협력은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요한 국가개발사업 중 하나였다.

2013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전략은 더욱 구체화됐다.

철도, 통신 인프라 구축, 자유무역지대·국제관광지대 설립 등으로 중국과 주변국가들의 경제를 일체화하는 일대일로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중국~몽골~러시아~북한을 잇는 동

북아 철도노선서 형성하는 등 기존의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옌지(延吉)국가중점개발 개방시범구 등을 기반으로 4국 간 협력들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등과의 육·해 복합 운송망을 활성화하고 북한을 통한 동해 항로 개설을 본격화해 낙후한 동북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 전략의 골자다.

특히 연변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 사업에 대해 "중앙(당과 정부)의 중요한 조치"라며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온 북중, 북러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재적질을 가했다.

장지투 개방 선도구는 북한·중국·러시아 3국 간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온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중국

의 동북지역에 대한 중기 발전계획에서 북한이 배제된 것은 시진핑의 강한 대북 분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지역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핵개발로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떠오른 북한을 일대일로와 같은 글로벌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참여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 금융기구의 투자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AIIB 회원국들의 동의와 여건 성숙 등을 전제로 대북 인프라 투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한서 저술한 반고

반고(班固, 32-92)는 후한 시대의 저명한 사가이자 문호다. 자는 맹견으로 지금의 섬서성 함양 지역인 부풍군 안릉 출신이다.

부친은 반표이고 백부는 반사로 둘 다 저명한 학자다. 그의 가문이 유학 세가가 된 것은 큰할아버지 반백 때부터다. 반백은 용모가 뛰어나고 시문에 능했다. 전한 성제때 황제 비서인 중상시에 발탁되었다. 둘째 큰할아버지 반유도 박학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재로 황가의 장서를 교열하는 책무를 담당했다. 부친 반표 역시 유명한 사가였다. 공사에 최선을 다해 백성들과 관리들이 그를 매우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사기후전」을 저술했는데 사기를 지은 사마천의 업적을 중국 역사 서술의 전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반고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9세때 글을 지었고 시와 부를

명제는 그의 원고를 읽어보고는 재능을 높이 평가해 죄를 면하고 사관에 임명하여 관사 편찬 업무를 맡겼다. 이후 정식으로 어명을 받아 한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한서는 명제의 뒤를 이은 장제 초기인 83년경 완성되었다. 부자 2대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팔표와 천문지는 그의 죽음으로 누이동생 반소와 마속이 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한서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정사인 기전체 형식으로 12제기 8표 10지 70 열전으로 전 100권으로 구성되었다. 사기에 이어 두 번째 정사에 해당한다. 전한 시대를 대상으로 한 단대사(斷代史)로 고조 유방에서 왕망의 난까지 12대 230년을 기록했다.

한서의 저술은 중국 문화사의 일대 쾌거로 평가된다. 당시 고관과 지식인들은 앞다투어 한서를 읽고 공부하였다. 역대로 뛰어난 역사학자 학문의 보고로 인정받았다. 범법은 후한서 반고전에서 "당시에 학자들 중에서 한

230년 전한 역사 80만자로 집대성

능숙하게 암송했다고 한다. 당대의 저명한 사상가인 왕충은 반표와 학문적으로 가깝게 교류하였다. 어느날 둘이 부친의 서재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반고가 끼어들어 제법 그럴싸한 말을 하였다. 깜짝 놀란 왕충은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 아이는 반드시 왕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며 대성할 재목임을 예견하였다.

그는 16세에 수도 낙양의 태학에 입학해 경서와 전적을 두루 공부하였다. 54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낙향했다. 부친의 죽음은 "젊은 나이에 홀로되었다"는 한서의 표현처럼 커다란 충격이었다. 58년 명제는 친동생 동평왕 유창을 표기장군에 임명하고 수십명의 참모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동평왕에게 주기를 지어 적극적으로 인재를 추천하였다. 이때 추천된 상당수의 인물이 중앙정부에 발탁되었다.

그는 고향에 접거하며 부친이 미완성으로 남긴 사기후전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 62년 "그가 사사로운 나라의 역사를 편찬하고 있다"는 고발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의 국법은 사사로운 역사 기록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는 낙양으로 올라가 자신의 무고를 상소했다.

서를 암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고 사마천의 사기를 능가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지기는 「사통」에서 한서는 역사를 편찬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후대의 관학은 사기를 깬다고 한서를 높이 받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고 역시 사기를 「사기의 역사 판단이 성인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서가 사기만 못하다는 후대의 평가도 적지 않은데 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로 사기는 수천년의 역사를 단지 50만자로 표현한 반면 한서는 200년동안의 일을 80만자로 서술해 말의 간략함과 번거로움이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사마천은 역사서를 기술하는 혁신적 방식을 창조했지만 반고는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했다는 비판이다.

그는 화제 원년 황제의 외삼촌인 두현의 흉노 정벌에 참여했다. 흉노 정벌에서 돌아온 이후 두현의 일당이 화제를 살해하려는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결국 옥리의 고문에 못기겨 61세에 억울하게 옥사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 94세 일기로 별세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의 조앤 드레이크 대변인은 "낸시 여사가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벨에어 자택에서 율령성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남편인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했던 낸시 여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디로 꼽힌다"고 로이터통신이 평가했다.

1921년 뉴욕 출생인 낸시 여사는 1940~50년대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로 활약하다가 1952년 당시 유명 남성배우였던 남편 레이건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주지사 부인으로 있으면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돕기와 같은 대외 활동을 펴기도 했다. 막후에서는 남편에 대한 정치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낸시 여사는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꼽히는 '아니라고 말하라'(Just say no)라는 운동을 주도했으며, 퇴임 이후에는 남편이 앓던 알츠하이머병 퇴치운동을 전개했다.

남편인 레이건 미국 제40대 대통령은 10년간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하다가, 2004년 6월 폐렴 합병증 탓에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연합뉴스



오늘 '세계 여성의 날' 6일(현지시각) 터키 앙카라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매년 3월 8일로,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에서 1975년 지정했다. /연합뉴스

뉴욕시, 오늘 위안부 결의안 상정...미주 세 번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참석

뉴욕시가 미국 대도시 중 세 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 여성인권위원장인 로리 롬보 의원 등은 8일(현지시각)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선언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2007년 미국 하원의원에서 통

과된 결의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뉴욕시의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교육에 힘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은 2007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대도시 중에서 위안부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뉴욕시가 세 번째이다.

롬보 의원의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발표

하는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함께 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를 위해 7일 저녁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8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유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발언할 예정이며, 다음날인 9일에는 퀸스보로 커뮤니티 컬리지 내 쿠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서 인턴과정 학생들과 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